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2(2) 장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장마>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는 어떤 게 있나요?

<장마>에서는 인물의 성격, 소재의 의미 등 작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묻
는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되었어.



음, 어떤 방식으로요?

작품의 전체 내용에 대해 묻거나, 기호를 활용해서 특정 부분의 의미 혹은 특
정 부분에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 등을 물어보는 형식이지.



아하! 근데 작품이 워낙 길어서 저는 내용을 자꾸 까
먹어요.

그럼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 ① 발단: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
으로 전쟁에 나감.
- ② 전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함.
- ③ 위기: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
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안 식구들을 채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함.
- ④ 절정: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놀도
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
- ⑤ 결말: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
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남.



어때? 이제 잘 기억할 수 있겠지?



그, 그럼요! 저를 <장마> 마스터라고 불러 주세요!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2(2) 장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발단~전개: 육이오 전쟁으로 한집에서 살게 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겪음.] **육이오 전쟁**(시대적 배경)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산에 숨어 국군에 대항한 북한군 게릴라),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아들들의 이념적 대립 때문에 불편한 사돈기간 / 이념으로 인해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 **‘두 할머니의 갈등의 원인은 두 아들의 이념이 다르다는 데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낮선 사람**(삼촌을 추적하는 경찰)의 꿈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고난, 어려움)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할머니와 ‘나’의 갈등 요인 → 결말에서 해소됨.)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갈등의 시작)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작품의 주된 배경)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자식을 잃은 상심에서 오는 저주)를 퍼붓는다.]([]: 두 할머니가 대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이념의 대립 문제가 가족 내의 갈등을 야기함.)

[위기 1: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음.]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굳게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삼촌의 귀환에 대한 할머니의 맹목적인 믿음.)

[위기 2: 할머니와 가족들이 삼촌의 귀환을 기다리며 준비함.]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픈)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엌에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지나 마니었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작품의 서술자 /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 1인칭 관찰자 시점) **(해당 작품의 시점,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살이 없이 매우 마른) 대꼬챙이였다.]([]: 할머니의 성화에 시달린 가족의 모습) **‘나’의 식구들은 삼촌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서 음식을 마련하고, 집안을 청소하였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에 불을 켜는 등)이 꺼져 있었다.]([]: 불길한 징조 암시) **(꺼져 있는 장명등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반이 조금 넘게)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고고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축축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꺼져 있는 장명등으로 인해 할머니의 심정이 상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느

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 장명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장명등을 꺼뜨린 일)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 정성의 **기미**(어떤 일이 일어날 기운, 짐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한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상징)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 장명등을 꺼뜨린 것에 대한 할머니의 노여움

[“경사시런 날, **아적부림**(‘아침부터’의 방언) 에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뱀이니까 이 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덜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한나 깐닥 앓고**(전혀 참견하지 앓고) 뒷전에서 귀경만 허고 있을란다.”]([]: 장명등을 꺼뜨린 가족들에 대한 할머니의 불만 토로 / · 표면적 의미: 집안일에 무관심하겠음. · 이면적 의미: 가족들의 행동을 지켜보겠음.)**(등장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할머니: 뒷전에서 구경만 하겠다고 했지만 무언의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처럼 방언을 사용한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둬 **혀를 찻다**(못마땅함).

“**큰자석**(‘나’의 아버지)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쫓쫓.”

할머니는 양쪽 팔을 뻗어 내저으며 부리나케 안채로 향했다.

[“지지리 복도 못 타고난 년이지. 나만침 아덜, 메뉴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어.”]([]: 할머니의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들을 질책하는 말임.)**(‘희곡으로 각색한다면 화자와 청중만 들을 수 있는 방백으로 처리한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랑채 앞**(외할머니의 거처)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향에 가까운 소리였다.]([]: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반감이 드러남. /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을 모두 쏘어가 버리라고 저주한 외할머니에 대한 반감)**(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왜 갈등하고 있고,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가족들에 대한 할머니의 노여움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닥하지 않았다. 방문을 꽁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이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 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 안팎의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빠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작고 매우 좁다란 길)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할머니의 감시를 받으며 삼촌 맛을 준비에 한창인 식구들 모습)

▶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집 안 청소를 하는 가족들

[위기 3: 삼촌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실망하나 할머니는 끝까지 기다림.] <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맑아지지 않는 날씨 →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함.)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 암시 / 날씨를 통해 가족과 민족의 앞날을 암시함.) >< >: **‘소설의 배경 묘사를 통해 소설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것만도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민족으로 확대)이 다 그러했다.

▶ 비가 그친 흐린 날씨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이야기를 시작하기 편한 화제)였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마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오늘 진시에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뻘뻘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챌 것이다. 마치 **죽어 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올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겉치레로 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을 구분하고, 각각의 시점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우리 집에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과 격려

시간이 **진시**(십이시(十二時)의 다섯째 시. 오전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북적었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 성싶었다.**(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과장법))('마을 사람들은 삼촌의 귀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인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혼자 친구네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낮선 사내**(삼촌을 잡으려는 사람(경찰) / 빨치산인 삼촌이 혹시 돌아온다면 잡아가기 위해 형사가 대기하고 있음.)('삼촌의 행방을 파악하려는 사람이 잠복한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할머니) 아주 굵은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찹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 점차 다가오는 진시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여덟 시였다.(진시는 일곱 시에 시작됨. → 문학적 사실과 실제적 사실이 다르게 서술됨.) **모두들 흥분에 싸여 초조하게 기다리는**(학수고대(鶴首苦待) -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아홉 시가 지나고 어느덧 열 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점쟁이가 말한 시간이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삼촌)

▶ 진시가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삼촌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친구네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실의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일반적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말이나 행동이 매우 느린 모양)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삼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에 비해 반찬만은 명절날만큼이나 **겉었다**(음식 등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했다.). 기왕 해 놓은 밥이니까 먼저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 버렸다.**(삼촌이 돌아오면 같이 먹기 위해)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삼촌이 돌아온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음.)(**할머니가 태평한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할머니)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자기합리화)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일 하겠냐는**(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옳하다고는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함. 아전인수(我田引水), 제 눈에 물 대기)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앞길이 멀어서 아득하게) 남아 있

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호**(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할머니

[절정 1: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가 졸도함.]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어렵고 궁한 상태)을 떨던 워리란 놈이 갑자기 **토방**(마루를 놓게 된 처마 밑의 땅)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워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밖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예고함.)**(‘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났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울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점층적 전개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떼의 조무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맹이**(: 구렁이(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소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구렁이’를 우리 민족으로 이해할 경우, ‘돌맹이’, ‘기다란 나뭇개비’, ‘돌팔매질’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짓쳐들어오는**(세계 몰아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꾸**(잇따라 거듭)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맹이가 날아와 폭 꽃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구렁이)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구렁이)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죽은 삼촌의 환생’을 상징함.)**(‘구렁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삼촌의 환생인 동시에,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였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들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뻗뻗이 굳어져 버렸다.**(어쩔 줄을 모르거나 꼼짝도 하지 못함. - 공포감)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향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 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짹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렛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단 한 번 때리는 매)에 요절을 낼 **요량**(앞일을 잘 헤아린 생각)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역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외할머니)의 손이 있었다.

▶ 구렁이를 해치려는 ‘나’를 말리는 누군가의 손

돌아다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짜지는 듯한 비명**(할머니의 비명 소리)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현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구렁이를 본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졸도했다.)**(‘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 생각하고 ‘나’를 나무람. /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할머니의 졸도와 외할머니의 꾸지람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할머니는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음.)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 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 할머니의 졸도로 야단법석인 식구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 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복새**(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할머니가 졸도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은 외할머니)(‘자기 아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친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대, 갈대, 수수깡, 싸리 등으로 발처럼 엮어서 만든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물러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돌돌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헛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되알지게**(힘주는 맛이나 역짓손이 몹시 세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따로) 놓고 있었다.]([]: 상처 입은 구렁이 →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상처 입은 구렁이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 외할머니의 침착한 행동과 수난을 당한 구렁이

[절정 2: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배움함.]“돌멩이를 **맹기**는(던지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릿발 같았다**(매우 매섭고 준엄했다.). 팔매질이 푹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친친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 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 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외할머니가 무사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양증스런 눈깔을 요모조모로 빗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득꺼득**(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삼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질**(길)을 찾아왔는가? ”]([]: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 다정하게 말함.)

꼭 물어 보려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구렁이를 삼촌이라고 여기는 외할머니를 비웃음.)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몹시 화가 난 모습)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창자’를 뜻하는 방언)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썼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델 놈**(주리형(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리대를 끼워 비틀던 형벌)을 당해도 썩 사람!)”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큰 소리로 꾸짖어 혼을 냄.)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구렁이(삼촌))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른 식구덜도 **모다덜**(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혈 디**(저승)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헛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혈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그서**(여기(이승)) 이려고 **총그리고**(‘머물러서 웅크리고 있거나 머뭇거리고’라는 의미의 방언)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혀야지. **자네 노친 양반**(‘나의 할머니)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언제나 가슴이 미여지겠는가? ”]([]: 구렁이를 달래는 외할머니)(**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는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며, 삼촌이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구렁이의 한(限)을 달래는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짐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구렁이의 한(限)이 풀리지 않음.)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매우 교묘한 꾀)]([]: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됨.(무속 신앙에 근거한 주술적 행위))을 일러 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 어디선가 들려 온 구렁이를 쫓는 묘방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뻗뻗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을 묶은 듯이 꼼짝 못 함.)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함.)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함.)('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이념 대립을 넘어서는 모성을 통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처럼 '할머니의 머리카락'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음.)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참빛**(빛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빛)으로 빚기는 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빚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 소반**(둥근 모양의 자그마한 밥상)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할머니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소제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은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받아 온 '나'와 음식을 준비하는 외할머니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자식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눈요기'의 방언)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냄새(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 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 음식을 대접하며 구렁이를 달래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해)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냄새를 맡은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함.)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직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구렁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혈육의 정과 전통적 정서를 통해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음을 드러냄.)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잇따라 자꾸) 소리를 질렀다. **새막**(벼나 수수 등의 곡식이 익을 무렵에 모여드는 새를 쫓기 위해 논밭가에 지은 막)에서 참새 떼를 쫓을 때처럼

"쉬이! 쉬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물러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구렁이)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겹에 질린) **워리**(강아지)란 놈이 그래도 끝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 가는 소리로 짚어 대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을 상징함.)을 왼쪽으로 빼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빈 땅)를 천천히 지나갔다.

▶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집에서 떠나는 구령이

“쉬어! 쉬어!”

외할머니의 손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구령이)은 우물결을 거쳐 넓은 **뒤란**(집 뒤 울타리의 안)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형님’의 사투리 - ‘나’의 아버지)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걸음 펜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펜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구령이가 한(限)을 풀고 가는 것에 안도함.)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결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령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 : 구령이(삼촌)를 정성을 다해 배웅하는 외할머니)(‘외할머니’가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구령이(삼촌)를 배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구령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

【결말 1: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함.】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친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구령이가 사라지자 의식을 회복함.)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

“**갔냐?**(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함.)”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삼촌이 원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에 간 것에 안심함.)(**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할머니의 심리를 묻는 문제에서 ‘아들의 영혼이 안식처로 갔다고 여기며 안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 : 할머니가 졸도한 후 일어난 일들)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아들이 한(恨)을 풀 것에 대한 안도감, 아들을 손수 보내지 못한 아쉬움)(‘슬픔, 안도감, 고마움 등의 복합적인 심리가 드러난다.’처럼 ‘눈물방울’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이 훌쩍한 불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당부했다. 【([] :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 해소를 암시함.)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한 판’을 뜻하는 방언)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 : 할머니와 싸운 이후 큰방에 출입하지 않은 외할머니)

▶ 그동안의 일을 듣고 외할머니를 부르는 할머니

“**고맙소.**(아들(구령이)의 한(限)을 대신 풀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

정기(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가 꺼진 **우묵한**(가운데가 둥그스름하게 푹 패거나 들어가 있는 상태인)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메었다.

“**사분**(사부인(査夫人). ‘안사돈’의 높임말)도 벌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헐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라. 그 **험험 일**(삼촌의 환생인 구령이를 달래서 배운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매나 수고시렸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뭍**(몸)이나 잘 **추시리기라우**(추스르다 - 몸을 가누어 움직이다).”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2(2) 장마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 줄거리] [발단~전개: _____으로 한집에서 살게 된 _____와 _____가 _____을 겪음.] **육이오 전쟁**(시대적 배경)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산에 숨어 국군에 대항한 북한군 게릴라),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아들들의 _____ 때문에 불편한 사돈지간 / _____으로 인해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야만 했던 _____의 비극적 상황)('두 할머니의 갈등의 원인은 두 아들의 이념이 다르다는 데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름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낮선 사람**(삼촌을 추적하는 _____)의 핏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고난, 어려움)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_____와 _____의 갈등 요인 → _____에서 _____됨.)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갈등의 시작)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작품의 주된 _____)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자식을 잃은 상심에서 오는 _____를 퍼붓는다.)([[] : 두 할머니가 _____하게 되는 _____인 계기)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_____의 대립 문제가 _____의 갈등을 야기함.)

[위기 1: 할머니는 _____이 돌아올 것이라는 _____의 말을 믿음.]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군게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 삼촌의 _____에 대한 할머니의 _____인 믿음.)

[위기 2: 할머니와 가족들이 _____을 기다리며 _____함.]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픈)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엌에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 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 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잉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작품의 _____ / _____를 서술자로 하여 _____를 유지함. / _인칭 _____시점)(**해당 작품의 시점,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살이 없이 매우 마른) 대꼬챙이였다.]([[] : 할머니의 _____에 _____가족의 모습)('나'의 식구들은 삼촌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서 음식을 마련하고, 집안을 청소하였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촉촉)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에 불을 켜는 등)이 꺼져 있었다.]([[] : _____암시)(**꺼져 있는 장명등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반이 조금 넘게)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고고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꺼져 있는 장명등으로 인해 할머니의 심정이 상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2(2) 장마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장마> 작품 개관

갈래	전후 소설, 중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샬머니즘적
제재	이념의 대립과 화해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 시간 - 육이오 전쟁 중 장마철 • 공간 - 어느 시골 마을
주제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특징	• 어린이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 이중적 시점이 드러남(어린이아이인 '나'의 시점 +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냄.

2. 청소로 말끔해진 집 안의 의미

장마로 더럽혀진 집 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 집 안이 말끔해짐.



가족애(민족애)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3.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상징적 의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 놓은 등불 →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함.
--------	--

↓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임.
----	-------------------------------

4. 시점의 특징

이 작품은 어린이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에 객관성을 부여함.

어린이아이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 (점쟁이의 말을 믿음,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음)를 비판 없이 묘사함.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냄.
어른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함.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함.

TEST 1단계

1. <장마> 작품 개관

갈래	□후 소설, □편 소설, 성□ 소설
성격	사□적, □징적, 토□적, 샐□니즘적
제재	이□의 대립과 □해
시점	1인칭 □찰자 시점
배경	• 시간 - □이오 전쟁 중 장마철 • 공간 - 어느 시□ 마을
주제	□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해
특징	• 어□아이인 ‘나’의 서술로 □관적 거리를 유지함. • □중적 시점이 드러남(어린□이인 ‘나’의 시점 + 어□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 □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성을 높이고 □속적인 분위기를 냄.

2. 청소로 말끔해진 집 안의 의미

□마로 더럽혀진 집 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 집 안이 말끔해짐.



가□애(□족애)로 민족의 상처가 □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3.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상징적 의미	아□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 놓은 등불 →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과 □성을 상징함.
--------	--

↓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생□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한 징조임.
----	-------------------------------

4. 시점의 특징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에 □관성을 부여함.

TEST 2단계

1. <장마> 작품 개관

갈래	ㄱ ㅎ 소설, ㄱ 표 소설, ㅅ ㅈ 소설
성격	ㅅ ㅅ ㅈ, ㅅ ㅈ ㅈ, ㅌ ㅅ ㅈ, ㅅ ㅁ ㄴ ㅈ ㅈ
제재	ㅇ ㄴ의 대립과 ㅎ ㅎ
시점	1인칭 ㄱ ㅈ ㅈ 시점
배경	• 시간 - ㅇ ㅇ ㅇ ㅈ ㅈ 중 장마철 • 공간 - 어느 ㅅ ㄱ 마을
주제	ㅇ ㄴ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ㅌ ㄱ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ㅎ ㅎ
특징	• ㅇ ㄹ ㅇ ㅇ인 '나'의 서술로 ㄱ ㅈ ㄱ ㄹ를 유지함. • ㅇ ㅈ ㅈ ㅅ ㅈ이 드러남(ㅇ ㄹ ㅇ ㅇ인 '나'의 시점 + ㅇ ㄹ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 ㅌ ㅇ을 사용하여 사건의 ㅅ ㅅ ㅅ을 높이고 ㅌ ㅅ ㅈ인 분위기를 뉘.

2. 청소로 말끔해진 집 안의 의미

ㄱ ㅁ로 더럽혀진 집 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 집 안이 말끔해짐.



ㄱ ㅈ ㅇ (ㅁ ㅈ ㅇ)로 민족의 상처가 ㅈ ㅇ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3.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상징적 의미	ㅇ ㄷ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 놓은 등불 →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ㅇ ㅈ과 ㅈ ㅅ을 상징함.
--------	---

↓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ㅅ ㅎ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ㅌ ㄱ한 징조임.
----	---------------------------------

4. 시점의 특징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에 ㄱ ㅅ을 부여함.

어린아이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ㅌ ㅎ ㄹ ㅈ인 할머니들의 행위(점쟁이의 말을 믿음,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음)를 ㅌ 표 ㅇ ㅇ 묘사함. • 남북한의 ㅇ ㄷ ㅇ ㄹ ㄱ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ㄱ ㅈ ㅈ으로 드러냄.
어른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ㅇ ㄹ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함. •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ㅇ ㄴ ㄷ ㄹ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함.

TEST 3단계

1. <장마> 작품 개관

갈래	□□ 소설, □□ 소설, □□ 소설
성격	□□□, □□□, □□□, □□□□□
제재	□□의 대립과 □□
시점	1인칭 □□□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 □□ 중 장마철 • 공간 - 어느 □□ 마을
주제	□□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나’의 서술로 □□□ □□를 유지함. • □□□ □□이 드러남(□□□□인 ‘나’의 시점 + □□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 □□을 사용하여 사건의 □□□을 높이고 □□□인 분위기를 냄.

2. 청소로 말끔해진 집 안의 의미

□□로 더럽혀진 집 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 집 안이 말끔해짐.



□□□(□□□)로 민족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3.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상징적 의미	□□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 놓은 등불 →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과 □□을 상징함.
--------	--

↓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한 징조임.
----	-------------------------------

4. 시점의 특징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에 □□을 부여함.

어린아이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할머니들의 행위(점쟁이의 말을 믿음,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음)를 □□□□ 묘사함. • 남북한의 □□□□□□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으로 드러냄.
어른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함. •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함.